

지역 소식통

정읍시, 빈집 대생 사업

내달 6일까지 신청 접수

정읍시가 빈집 수리비를 최대 3000만원 지원해 4년간 무상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사업 참여자를 오는 3월 6일까지 모집한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고쳐 귀농·귀촌인, 농촌 유학생,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해 관내 빈집 4곳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는 보일러 교체부터 부엌·화장실 개량, 내·외부 마감 공사 등 전반적인 주택 재단장(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 한도를 지난해 최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려 한층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상 임차 대상에 다문화가정을 새롭게 포함했다. 수리비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해당 건물을 4년의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지정된 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소방서,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실시

고창소방서(서장 이경승)는 2026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예방 활동으로는 행사장 및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비 단계에서는 대형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현장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출동 인력과 장비를 철저히 점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상황 발생 시 즉각 현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초등 입학 전까지 육아수당 지급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 기간 개편... 2026년생부터 12~71개월까지 혜택

정읍시가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매월 2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며, 올해 출생이부터는 지원 기간을 생후 12개월부터 71개월까지로 변경해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육아수당 지원 사업의 핵심은 영아기 이후의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급 구간의 합리적인 조정이다. 기존 2026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는 생후 0개월부터 59개월까지 수당을 받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생후 12개월부터 71개월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태어난 직후 영아기에 집중된 기존 국비 지원 정책과

연계해 아이가 자랄수록 커지는 양육비 부담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덜어 주겠다는 시의 전략적 판단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보호자(부 또는 모)와 그 영유아다. 기존 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계속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새롭게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는 2026년 이후 출생아의 경우,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60일 전부터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매월 25일에 정읍시당사상품권

으로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미리 입금된다. 스마트폰앱이나 카드와 연동해 충전되는 방식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육아수당 조정은 정읍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역사회가 다 함께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정읍시는 부모님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보육 정책을 펼쳐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대외비 문건 유출자 경찰청 고소장 접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행정 신뢰 훼손·투자 기업과 신뢰 관계 타격 우려·엄정 조치할 것"

전북 고창군이 (주)모나오펜과 체결한 '고창종합테마파크 민간투자 실시협약서' 대외비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유출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4일 전북경찰청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고창군과 (주)모나오펜이 삼원면 만물리 일원의 리조트 조성을 위해 체결한 실시협약서가 최근 한 지역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시작되었다.

해당 문건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의 경영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양측 합의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하기로 명시한 문서이다.

고창군은 군의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 협약서 각 페이지에 '대외비' 문건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문서 번호를 부



여하여 사본을 제출했으나, 지난 14일 해당 사본의 사진이 해당 매체에 게시되면서 유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고창군은 이번 문건 유출이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투자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은 24일 전북경찰청을 방문하여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성명불상의 유출자를 고소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고창군은 해당 문건 사진을 보도한 매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진 활용 중단과 기 게시된 자료의 삭제를 요청했다.

군은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은 물론, 문서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를 계기로 협약 당사자인 (주)모나오펜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이번 사건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리조트 조성 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태인초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애국선열 넋 기린다

정읍시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오는 3월 1일 태인 3·1절 기념탑 헌화를 시작으로 태인초등학교에서 애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1일 오전 10시 태인 3·1절 기념탑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며 엄숙하게 문을 연다. 이어 10시 30분부터는 태인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기념식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3·1운동 유족과 보

훈단체 회원, 일반 시민 등이 대거 참석해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함께 기린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첫 순서로 기마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및 축사, 3·1절 특별 공연, 만세삼창, 3·1절 노래 제창 순으로 의미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3·1절의 참된 의미를 시민들이 더욱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공연과 부대행사를 풍성하게 준비했다. 107년 전 그날의 뜨거운 함성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그날의 함성' 태권도 시범과 선열들의 넋을 위

로하는 '3·1절 진혼 살풀이' 공연이 무대에 올라 감동을 선사한다. 또한 행사장 안팎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손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각 가정 내 태극기 달기 운동(캠페인)을 독려하며, 따뜻한 차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시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꾸며진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태극기를 게양해 주시고, 이번 기념행사에도 참여해 선열들의 거룩한 정신을 널리 되새겨보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수 6.3지방선거 출마 공식선언

박병래 부안군의회의장, "부안의 변화를 구호가 아닌 구조를 만들 것"

박병래 부안군의회의장은 25일 오전 10시 부안발전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부안의 변화를 구호가 아닌 구조를 만들겠다"며 6.3지방선거 부안군수 출마를 밝혔다.

그는 "의회는 비판과 견제의 자리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했고, 군민의 삶을 먼저보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제는 제안하는 자리를 넘어 직접 실행하고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었는가, 이제는 행정의 자리에서 결과로 증명해 내겠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박 후보는 두 번에 군의원과 의장을 거치면서 그간 쌓은 모든 노하우를 살려 다른 부안, 더 나은 부안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방향이 아닌 실행을 위해서 7대 핵심과제로 첫째, 군민 참여 기반의 책임행정 둘째, 농업 경쟁력회복과 유통구조개선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넷째, 청년이 머무는 부안 다섯째, 촘촘한 복지과 교육기반 강화 여섯째, 환경과 개발의 균형 일곱째, 결과로 증명하는 군정 등을 구축하며 군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출마는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8년간의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고민하고, 토론해 온 시간과 수많은 현장에서 들었던 절박한 이야기들을 이제는 실행의 책임으로 이어나가겠다는 결단을 나타냈다.

박후보자는 부안이 겪고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능성은 끝까지 붙들겠다. 실행으로 이해를 구하는 행정 이 아니라 결과로 신뢰를 얻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병래후보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 지역의 미래다"며 "그 소중한 선택 앞에 더 낮은 자세로 더 무거운 책임으로 서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2026년 제1회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부안군은 25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부안군 안전관리위원회를 위원장인 권익현 부안군수 주재로 군, 경, 소방,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8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 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특히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의무계획으로 군 안전관리 체계, 재난관리역량 강화 방안, 자연재난·사회재난을 포함한

총 3개 분야 41개 유형의 세부 대책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안전사고 관리대책을 담고 있다.

이에 향후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재난 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되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 점검대상(22개 시설분야 100개소)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점검대상을 확정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청년농업인스마트팜' 청년농업인 모집

고창군이 3월 준공 예정인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입주 청년농업인을 모집한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는 고창군 성송면 관정리 190번지 일원에 4만 9775㎡ 규모로 만들어졌다. 단동형 2동, 연동형 3동, 스마트형 1동 등 2만 800㎡ 규모의 온실 6동이 구축된다.

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 12개 팀이다. 고창군에 거주(주

민등록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관외 거주자도 모집공고 마감일 전까지 고창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청년스마트팜TF팀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